

No. 61

2006 NOVEMBER

(재) 국제노동재단

우편101-0051 도쿄도 지요다구 간다진보초 3-23-2 금명빌딩5F TEL. 03-3288-4188 FAX.

03-3288-4155

URL:<http://www.jilaf.or.jp> E-mail:info@jilaf.or.jp

9/6 국제심포지엄을 개최

중동화평을 생각한다
~노동조합이 가능한 일~

●이스라엘과의 합동 프로그램

8월 31일부터 9월 13일의 일정으로, 중동·아프리카 북부지역에서 7명의 젊은층 노조 지도자를 초빙했다. 이번에는, 쿠웨이트 노동조합연맹 (KTUF)을 새롭게 초빙한 것 외에, 알제리 일반노동조합(UGTA), 이집트 노동조합총연합회(ETUF), 요르단 노동조합총동맹(GFJTU), 모로코 노동조합(UMT)으로부터 각 1명과 팔레스타인 노동조합총연맹(PGFTU)으로부터 2명이 참가하여 팀이 구성되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팀의 초빙에 맞추어 방일한 이스라엘 노동총동맹(HISTADRUT)과 합동하여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이다. 같은 시기에 방일한 ILO의 요직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심포지엄이 지금 개최되는 것은 기적적인 일인데, 평화국가 일본이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평가를 들었다. JILAF에서는 초빙사업의 일환으로, 과거에 PGFTU와 HISTADRUT에서 심포지엄등을 개최한 것 이외에, 현지 지원사업에서도 현지 합동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어느쪽도 현재는 중단되었다.

때 마침 중동에서는 정세의 악화로 인한 긴장 상태가 계속되었으므로,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한때는 심포지엄의 개최 여부도 의심스러웠으나, 중동화평 실현에 대한 참가자들의 생각은 공통적으로, “빵과 자유와 평화”을 내거는 국제자유노련(ICFTU)의 관점에서, 중동화평 실현을 향한 노동조합 수준에서의 활동의 하나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심포지엄 개요

JILAF와 FES의 공동주최, 연합의 후원으로 개최된 “중동·북아프리카지역의 노동은

동”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이번 심포지엄은, 제1부는 각 조직으로부터의 보고, 제2부는 패널디스커션으로 구성되어 개최되었다. 제1부에서는, 참가자들로부터 각국의 노동사정 및 노동운동 현상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일하는 팔레스타인인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PGFTU와 HISTADRUT의 의견충돌이 일어나는 장면도 보여졌다.

제2부에서는, 나카지마시게루(中嶋滋) ILO이사를 코디네이터로 맞이하여, 중동화평에 있어서의 각조직의 견해와 현황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서 각조직의 의견을 구했다. 각 참가자가 각각의 생각을 뜨겁게 전하는 가운데, PGFTU와 HISTADRUT로부터는, 평화적인 공존을 위해서는 상호 무력공격의 즉시 정지가 중요하다는 공통인식을 얻을 수 있었다. 또 다른 참가자들로부터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호의 대화이며, 주변 각국및 국제적인 노동조합조직의 연대와 활동도 조기해결을 위한 힘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디스커션에서는, 이집트의 참가자로부터 노동자들에 의한 중동화평을 위한 국제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자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중동화평 실현을 위해

이번 심포지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중동화평 실현에 대해 누구나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화평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가능한 일은, 이스라엘및 아랍 각국의 평화적인 공존을 지지하고, 화평 실현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시키는 것이라는 인식을 참가자 전원이 강하게 인식했다.

▲ 약 70명의 참가자가 심포지엄에 출석했다

▲ 패널디스커션에서의 참가자들의 모습

“화평 실현을 위한 각각의 생각을 열심히 토로”

INTUC/JILAF 학교 모니터링

인도의 아동노동 박멸에 공헌

~지역사회와의 연대가 불가결~

현지 지원사업부는, 10월 16일~23일에 인도의 타밀나드주에서 1999년 1월~2003년 9월까지 운영했던 코필파티교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안데라푸라데시주의 마카폴교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코필파티교의 성과에 대해서는, JILAF의 지원이 종료된 후,

인도정부와 ILO가 운영하는 조직인 NCLP(National Child Labour Project)의 지원을 받아서 INTUC가 학교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계자로부터 “JILAF의 학교설립 당초와 비교하여, 동(同)시내에서 40~50%이상이나 아동노동이 감소했다” 는 보고가 있었다. 마카풀교에서도, 아동노동을 없애기 위한 노래를 부르는 시간을 마련하는등 아동노동의 박멸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보여졌다.

그러나, 소치기아이들과 땀나무를 줍는 아이들의 모습을 다수 볼 수 있는등, 아동노동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학교운영 담당자로부터는 “아동노동이 없어지지 않는 원인은, 빈곤, 아이들과 부모들의 교육부족” 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현지 NGO인 MVF(M. Venkatarangaiya Foundation)의 대표자와의 의견교환회에서는, “인도사람들은, 아동노동자들을 보아도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있어, 그 의식이 가장 문제” 라는 흥미 깊은 이야기를 들었다.

앞으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활동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드는 INTUC/JILAF 마카풀교의 학생들

VGCL/JILAF조직화 세미나

일본계 기업에 있어서의 조직화를 지원
~자주적이며 동시에 지속적인 대처에 기대~

2003년부터 2008년의 5년간 100만명 (현재 공칭 약 500만명)의 조직확대를 목표로 하는 베트남 VGCL(베트남 노동총동맹)의 요청을 받고, 베트남 북부 최대의 항만도시인 하이퐁시에서 “조직화 세미나” 를 개최했다. 연합으로부터 요시미야 소고(吉宮聰悟) 조직확대·조직 대책국장, JILAF로부터는 야나기야 기미히코(柳谷公彦) 현지 지원사업부원이 출석했다.

이번 참가자는, 2005년에 정비된 노무라공업단지내의 일본계 기업에서 활동하는 노동조합 임원 30명이었다. 세미나에서는, 베트남 VGCL로부터 도이모이정책 이행으로 인해 변화된 노동사정, 노동조합의 역할및 공업단지에서의 조직화 경험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공업단지에서의 조직화 경험에 대해서는, JILAF가 2004년에 초빙한 레 쉰 기아 호치민시 공업단지 노동조합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다. 연합 요시미야 국장으로부터는, 일본의 노동운동, 노동협약및 조직확대 경험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참가자들은,

각 세션 후의 그룹 워크에서 활발한 논의를 하고, 각 현황에 따른 액션 플랜을 책정했다. 마지막 날에는 니치아스 하이퐁 주식회사와 ASTY베트남 주식회사의 일본계 기업 2개사의 협력을 얻어, 직장방문과 노사관계 현황에 대한 청취회를 가질 기회를 얻었다.

VGCL에 대해서는, 참가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한층 더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 노동조건을 향상시켜 가기를 기대한다.

▲개회식에서 인사하는 연합·요시미야 국장(사진오른쪽)

회랑

하쓰자와 미키(初沢幹)

PROFILE

디트로이트 총영사관 전문조사원.

1997년 4월부터 일본노동연구기구(현: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2003년 4월부터 2006년 1월까지 JILAF에 파견.

2006년 2월부터 현직.

JILAF의 사회개발 활동

JILAF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일을 담당했다. 미국 및 유럽 등의 노조 리더를 초빙하여, 일본에서 의견교환 및 세미나 실시 사업을 다룬 경험은, 디트로이트에서 미국의 노동운동을 관찰할 때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단지, 가장 인상 깊은 일이 무엇이냐고 누가 묻는다면, 인도에서의 학교 프로젝트일 것이다. “노조 사회개발 활동”은, 현지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널리 지역 주민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활동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활동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인도의 노동조합 담당자가, 지역의 사회문제인 아동노동에 진지하게 대응하려는 태도에 감격했다. 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대표해야 할 노동조합은, 빈곤과 각종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조합원 이외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인도에서는, 다시 한번 세계의 빈곤과 그 격차 문제를 실감했다. 학생시절에 도상국의 사회개발을 전공, 공부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상기시켜 주었다.

JILAF가 앞으로도 사회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며, 확대해 주었으면 한다. 최

근에는 아시아에서 해일과 지진등의 자연재해로 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JILAF가 지금까지 키워온 네트워크와 연합의 협력이 있으면, 이 분야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이 추진하는 국제협력 No.13

“캄보디아 학교건설”

푸드연합 아지노모또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 히로시마 쇼(廣嶋將)씨

아지노모또노동조합은 올해, NPO법인 ASAC(캄보디아에 학교를 건설하는 모임)을 통해, 캄보디아 남부의 칸포트주 안로미에지구에 10교사짜가 되는 학교를 건설할 예정이다. 동노조는 1998년부터, 사회공헌의 일환으로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1년에 1교씩 학교를 건설해 왔다. 개교식등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노트와 펜을 비롯하여 간판상품인 “아지노모또” 를 선물 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는, 초등교육의 지연으로 식자율이 상당히 낮은 상황으로,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데도 몇십킬로나 걸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까지, 동노조는, 폴포트 내전의 영향으로 최근까지 지뢰가 메워져 있는 등의 원조와 개척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를 건설해 왔다.

동노조의 학교건설은, 주정부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는등,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커다란 역할을 해 왔다. 또, 회사측에도 좋은 영향을 주어 “노조가 학교건설을 한 교정에, 회사측이 도서관을 건설하기도 하고, 기부를 하기도 해주었다. “고 히로시마씨는 이야기한다.

아지노모또노조가 건설한 학교가 더욱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이 학교에서 배운 아이들이 그려줄 밝은 캄보디아의 미래에 기대하고 싶다. (취재:조사홍보부 가토)

▲아지노모또노동조합의 지원으로 건설된 새교사

▲선물은 역시 “아지노모또” 와 노트·펜.

캄보디아에서는 “아지노모또” 는 대단히 귀중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11회 국제활동가 양성코스 개교

어학연수에 “엔트리 코스” 를 신설
~기본적인 영어력 기초 만들기를 실시~

본코스의 목적은, 국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영어력을 몸에 익히는 동시에, 국제활동의 실무와 국내·국제 노동운동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장래 노동관계의 국제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 코스를 위해서 특별히 개발된 교재를 사용한 영어연수 및 노동강의, 국제산업별 조직(GUF)에 대한 조직방문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매년 커리큘럼을 개선, 충실을 기해 왔습니다. 이번 코스에서부터는 영어연수의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엔트리 코스” 를 마련했습니다. 영어력에 자신이 없는 분을 위해서, 본코스에 들어가기 전의 준비단계로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간단한 문법 리뷰, 영어 청취법, 영어 습득법등, 기본적인 영어력 기초만들기를 하고, 종료시에 앞으로의 영어학습 방식 및 학습교재등에 대해 개별적인 필요에 맞추어 어드바이스를 해줍니다.

작년의 제10회에서는 9명이 수료하고, 제11회째인 올해 국제활동가 양성코스의 수강자는 합계 12명 (엔트리코스만 참가 2명)으로 개강했습니다.

JILAF 달력

■활동 보고 (2006년 9월~11월)

●초빙

- 아프리카 프랑스·포르투갈어권팀 (9/21~10/4)
- 중미팀 (10/19~11/1)
- 유럽팀 (11/9~22)

●현지지원

- 중국 ACFTU 중소기업조직 강화 세미나 (9/9~16)
- 몽고 CMTU POSITIVE 지역 세미나 (9/10~17)
- 인도네시아 ITUC POSITIVE 코어 트레이너 양성 세미나 (9/17~22)
- 베트남 VGCL조직화 세미나 (9/25~30)
- 필리핀 TUCP POSITIVE 모니터링 (10/8~15)
- 인도 INTUC 학교프로젝트 (10/16~23)

- 베트남 VGCL POSITIVE 지역세미나 (10/16~28)
- 네팔 NTUC POSITIVE 모니터링 (11/18~25)
- 기타
 - “중동·북아프리카지역의 노동운동” 국제 심포지엄 (9/6) <게이오플라자호텔>
 - 고용대책 조사 “비정규 고용에 대한 각국 조사” (9/29~10/13) <프랑스, 독일, 벨기에>
 - 고용대책 조사 “비정규 고용에 대한 각국 조사” (10/7~20) <워싱턴, 뉴욕, 샌프란시스코>
 - ICFTU 해산 대회 및 새국제조직 결성대회 (10/30~11/6) <오스트리아·비엔나>
 - 제11회 국제활동가 양성코스 (11/8~) <JILAF>
 - 제48회 총무위원회(11/14) <총평회관>
 - 고용대책조사 “비정규 고용에 대한 각국 조사” (11/15~23) <영국>
 - ICFTU-APRO조정회의 (11/20~24) <싱가폴>
 - 제49회 이사회·평의원회 (11/22) <총평회관>
- 활동 예정(2006년12월~)
- 초빙
 - “직장에서의 에이즈문제” 팀 (11/30~12/13)
 - 유라시아팀 (2007/1/18~31)
 - 남미팀 (2007/2/1~14)
 - “젊은이 고용과 노동조합의 역할” 팀 (2007/2/15~28)
- 기타
 - “직장에 있어서의 에이즈 문제” 국제 심포지엄 (12/6) <유엔대학 UN하우스>
 - KOILAF(한국 국제노동재단)과의 정기교류 (12/12~15) <동경>

INSIDE OUT

인 사이드아웃

연합·국제국에서 판견된 와타나베입니다. 국제노동운동 중에서도 도상국과의 교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JILAF의 현지지원, 협력활동 등을 통해 세계의 많은 동료들과의 교류를 촉진하여 각처에 공헌 할 수 있도록, 20년의 국제경험을 살려서 밝게 대응해나가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타나베 히나코(渡邊ひなこ) /연합에서 파견